

자율화를 통한 내실다지기

김 중 성
〈재무부 손해보험 과장〉

I 머리말

지난 80년대는 우리 경제가 안정기 반을 구축하고 고도성장을 지속함으로써 흑자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신흥 산업국으로의 도약을 실현시킨 역사적인 시기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애 힘입어 우리 보험산업도 높은 외적성장을 계속하여 1980년에 9천9백억원 이던 보험료수입이 1989년에는 13조원에 달하였고, 이중 손해보험료 수입은 1980년의 3천9백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운용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되지 못한 국민들의 형평·복지욕구가 지난 몇년간 일시에 표출되어 성장 잠재력이 침식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희망과 도전이 교차하는 90년대를 맞으면서 보험산업의 주변 환경과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전년도의 주요 보험정책 추진실적 과 90년도의 보험산업여건 및 보험정

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89년도 주요정책 추진 현황

'89년도에 추진한 주요 보험정책을 보면,

첫째, 화재보험 공동인수제 (POOL) 해체를 들 수 있다. 가입이 의무화된 화재보험의 보험업무와 화재예방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인수하여 각 손해보험회사에 배분하여 오던 POOL을 단계적으로 해체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원하는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한편 보험회사는 경쟁을 통해서 화재보험을 인수함으로써 보험인수 기술이 개발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과당경쟁으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질 우려도 있다.

둘째, 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으로 신설보험회사가 급증, 생명보험회사는 불과 2년 사이에 6개사에서 32

개사(외국사 지점 포함)로 늘어나게 되었고 손해보험 회사는 보증보험회사 1개사를 신설함으로써 1970년이래 1개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영위되어 오던 보증보험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늘어나고 있는 보증보험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기업 및 도시서민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셋째, 자동차보험 제도를 크게 개선하여 사고기록점수제를 도입하고, 경력별·연령별 할인·할증을 강화하여 보험가입자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였으며, 과실비율은 당사자가 아니라 보험회사간에 결정하도록 하는 등 보상절차를 개선하고 보험가입금액을 다양하게 하여

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넷째,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를 보험개발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요율을 산출·검증하며 보험에 관한 정보·통계자료를 집적관리·분석하도록 하고, 손해보험요율조정지침을 시행하여 수시로 보험요율을 조정해오던 것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보험요율의 적정성 및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Ⅲ '90년도의 보험산업 여건

1. 경쟁심화

생명보험은 신설된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손해보험도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기업보험

물량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화재보험 POOL 해체,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본격적인 영업개시 및 재보험거래의 자율화 등으로 경쟁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소비자 보호주의 점증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상품의 내용, 가격, 서비스 등에 관한 판단은 더욱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정치,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민주화 추진과 최근 몇년 전부터 일고 있는 소비자 보호운동은 그 활기를 더해 갈 전망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를 비롯한 이해집단과의 관계개선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유사보험 확대

88년 국민연금 실시와 89년 의료보험의 국민 개보험 실시 등으로 공공보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특정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이익과 재해를 구조하기 위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자구적인 조직체인 공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은 결국 보험시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Ⅳ '90년도의 보험정책 방향

1. 보험요율 제도개선

—보험요율의 자유화 폭 확대

손해보험은 모든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가받아 사용하는 협정요율 위주로 되어있어 보험회사간 자율경



쟁을 제약하고 보험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험산업의 개방화,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건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요율의 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요율의 자유화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나 가계성보험을 제외한 기업보험 분야에서의 협정요율을 범위요율 또는 자유요율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나갈 것이다.

— 손해보험요율조정지침의 정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요율을 정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보험요율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요율조정지침”을 지난해에 마련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동지침이 정착되도록 하여 보험가입자나 보험사업자 모두에게 적절한 보험가격이 형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의 정착
자동차보험료 부담의 형평도도와 자동차 사고예방 효과를 제고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상절차를 개선한 지난 해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내용이 정착되도록 계속 검토 보완해나가고 아울러 책임보험 가입금액 인상,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일원화, 의료비 지급의 적정화, 합리적인 피해자 보상문제 등을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다.

3. 자율경쟁체제 확립

보험요율의 자율화와 자동차 보험제도개선의 정착, 소비자 권익보호를 한층 증대해가는 가운데 화재보험을 비롯한 각 보험 종목 및 보험시간의 자율경쟁 체제 확립 등이 바로 90년도에 우리 보험업계가 해결해야할 우선과제이다

새로운 보험회사들의 신설, 화재보험 POOL 해체, 재보험 거래의 자율화, 대내외로부터 보험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요구 등으로 보험시장의 여건은 어느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과열경쟁으로 치닫게되어 모집질서를 문란시킬 우려도 없지 않으나, 오히려 경기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우승하는 운동선수처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험산업기술을 개발하고 건전한 경쟁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모집 제도를 검토·보완해나갈 계획이다.

4. 화재보험 POOL 해체의 검토 보완

지난해 1단계로 해체한 바 있는 화재보험 POOL의 나머지 특수물건에 대하여도 당초 계획대로 해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히 해체물건에 대한 모집상태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건전한 모집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1973년 제정된 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외국의 예 등 관련 자료 등을 조사, 연구할 것이다.

5. 소비자보호 강화

점증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주의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는 지금까지 실적 위주의 경영방침을 하루 빨리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 보호라는 소극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증대시키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보험판매시 제기되는 약관에 대한 설명 부족 또는 과장 설명 등은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시정하고 보험료의 자동이체, 온라인송금, 신용카드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품의 개발, 판매, 유지 등의 모든 단계에서 계약자 편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V 맺는 말

이제 우리는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맞으려는 길목에서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과 점증하는 소비자 수요를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보험회사의 내실화와 체질강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적극적인 경영 개선 노력과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면서 국민 모두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